

내현적 자기에와 초기 작업동맹의 관계*

정 다 영†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연구 1과 2로 구성된다. 연구 1에서는 대학 학생생활상담소의 63명의 내담자에게 상담 1, 2회기 시작 전에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를, 3회기 직후에 작업동맹 질문지(WAI)를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각각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에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은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하였다. 작업동맹의 각 하위요인들은 모두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정성 요인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사례 중 내현적 자기에 점수가 높으면서 작업동맹이 높고, 낮은 2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에와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언어적 상보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내현적 자기에가 높고 작업동맹이 낮은 두 사례의 경우 친애차원에서 내담자는 적대적 반응을, 상담자는 주로 우호적 반응을 보였으나 적대적 반응도 있었으며, 통제차원에서는 상담자는 지배적 반응을, 내담자는 순종적 반응을 주로 보였다. 내현적 자기에가 높고 작업동맹이 높은 두 사례의 경우, 친애차원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우호적 반응을 많이 보였다, 반면 통제차원에서 상담자는 지배적 반응을, 내담자는 순종적 반응을 주로 보였다. 또한 언어반응 연계쌍을 분석한 결과, 작업동맹이 높은 집단은 부정적 상보성 점수가 긍정적 상보성 점수보다 낮았으며, 작업동맹이 낮은 집단은 긍정적 상보성과 부정적 상보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에, 작업동맹, 친애, 통제, 상보성

* 본 연구는 후기필자(정남운)의 지도로 선기필자(정다영)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연구(2006)를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정다영,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4-5, Tel : 010-6610-9068, E-mail : jdyoung0621@hanmail.net

고도로 산업화되고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자기 존재감과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심리적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공동체 의식보다는 자기에게 관심이 더 많으며, 타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자기를 위한 도구적인 가치를 지닌 것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자기중심세대”, “문화적 나르시시즘”,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의 개념들이 주목을 받았고, 이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에 (narcissism)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자극하였다(Lasch, 1979; 김윤주, 1991).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에라는 심리적 현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부적응적인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내현적 자기에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인정 욕구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민성으로 인해 상담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또한 크다. 상담자와 안정적이고 촉진적인 작업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상담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들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연구는 사실상 드문 편이다.

상담 초기에 형성되는 상담관계는 상담의 최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담관계의 여러 측면 중에서 특정한 이론적 입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접근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이 바로 작업동맹이며, 많은 선행 연구들이 성공적 상

담을 위해서는 초기에 적절한 수준의 긍정적 작업동맹을 확립해야 함을 보여주었다(Hill & Highlen, 1984; Strupp & Hadley, 1979). 작업동맹은 상담의 성과에 좋은 예언변인이 되고 있지만, 작업동맹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자의 특성이나 치료적 개입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상담을 받고 있는 내현적 자기에 내담자들의 관계적 특성을 작업동맹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하였다. 또한 이들이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나누는 언어반응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내담자-상담자 간 상보성과 작업동맹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 내담자들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상담에서 적절한 개입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자기에라는 용어는 “성적 감정을 잃게 되며 자기 선망에 거의 완전히 몰입되는 경향”이라고 표현한 Havelock Ellis(1898)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기에의 구체적인 심리현상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한 사람은 Freud였다. Freud(1926)는 처음에 “자기에에 대하여(On Narcissism)”를 통해 자기에란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향해져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라고 설명하였다. 자기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Freud(1953)는 자기에적인 전지전능감과 거대한 자기 개념을 대상상실로 인한 우울에 대한 방어로 보았으며, 또한 자기에가 자신의 이상을 유지하는 일과 자존감을 조절하는 일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자기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이론적으로도 제안되었고(Kohut, 1977), 경험적인 증거도 많이 제시되

고 있다(정남운, 2001; Wink, 1991a, 1991b; Rathvon & Holmstrom, 1996; Hendin & Cheek, 1997). 이들 두 가지 표현 양상 가운데, 타인의 반응에 과민하고 쉽게 상처를 입는 모습을 내현적 자기애로 간주하는데, 내현적 자기애의 현상적 모습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첫째,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다. 둘째, 억제적이고 수줍어하며 심지어는 자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셋째,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더 준다. 넷째, 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한다. 다섯째, 경멸이나 비판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섯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끼고 쉽게 상처를 입는다.

Wink(1992)는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도출된 자기애 척도들을 요인분석하여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두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두 요인 중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비판이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한수정(1999)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가 부정적임을 검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특성을 갖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이 사람들 눈에 띄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한다. 또 주변 사람이 혹시 자신을 좋아해주고 있는지,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작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쉽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 쉽다. 이들은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고 때로는 순종적으로 보이며 자신감 없는 듯이 행동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사귀어 보면 이들이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내면 세계에는 상당한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사실 이러한

자만심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략이자 제스처임을 알 수 있게 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상담 과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류의 연속 과정으로 볼 수 있다(Anchin & Kiesler, 1982; Strong & Claiborn, 1982; Watzlawick & Weakland, 1977). 상담과정의 특성 중 중요한 측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직선적 인과론 보다는 순환적 인과론의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김계현, 1994). Kiesler(1983)는 각 개인의 행동은 무선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가능한 범위의 반응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즉 개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은 비교적 좁은 영역의 대인적 반응들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Leary(1957)와 Carson(1969), 그리고 Kiesler(1982, 1983)등은 이와 같은 유형의 상호작용을 상보적(complementary) 상호작용이라고 일컬었다.

Leary(1957)는 대인관계 행동의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 행동은 친애(affiliation)와 통제(control)라는 두 요인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친애와 통제의 두 축을 가진 이론적 원형(circumplex) 상에 대인관계 행동들을 순서있게 배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바로 옆에 배열된 행동들끼리 서로 유사한 행동이 되고, 지름의 반대편으로 갈수록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된다. Strong과 Hills(1986; Strong, Hills, & Nelson, 1988)는 Leary의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기초하여 대인관계 행동을 부호화하는 평정체계인 대인의사소통 평정척도(Interpersonal Communication Rating Scale: ICRS)를 개발하였는데, Tracy와 Guinee(1990)는 이 척도의 적용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상담 장면에서 이 척도가 대인관계 상보성을 측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았다.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서는 가장 지배적인 반응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 유목에 숫자 혹은 영문자를 할당하는 관습이 있는데 (Kiesler, 1983). 그림 1은 이 관습에 따라 다양한 대인행동을 유목 및 강도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그림 2는 이 척도에서 서로 상보적인 반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그림 2에서 위의 그림은 서로 상보적인 쌍들을 보여주고, 아래의 그림은 반(反)상보적인 쌍들을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친애차원은 같고 통제차원은 반대되는 반응들끼리 상보적인 쌍을 이루고 있으며, 통제차원은 같고 친애차원은 반대되는 반응들끼리 반상보적인 쌍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보성은 연속선상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이론상 가장 상보적인 반응에서부터 가장 비상보적인(반상보적인)반

응 사이에 다양한 정도의 비상보적 반응 쌍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인관계적 상보성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에 관한 개념으로,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상담 성과를 가장 잘 예언 할 수 있는 작업동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초적인 작업동맹은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며(Greenson, 1967; Tracey & Ray, 1984; Welberg, 1988), 3회기 직후에 평가된 작업동맹 수준이 상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Horvath & Greenberg, 1986,1989; O'Malley, Sah & Strupp, 1983). 또한 몇몇 연구들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초기 작업동맹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연구에서 작업동맹은 상담 초기의 우호적인 상보적 상호작용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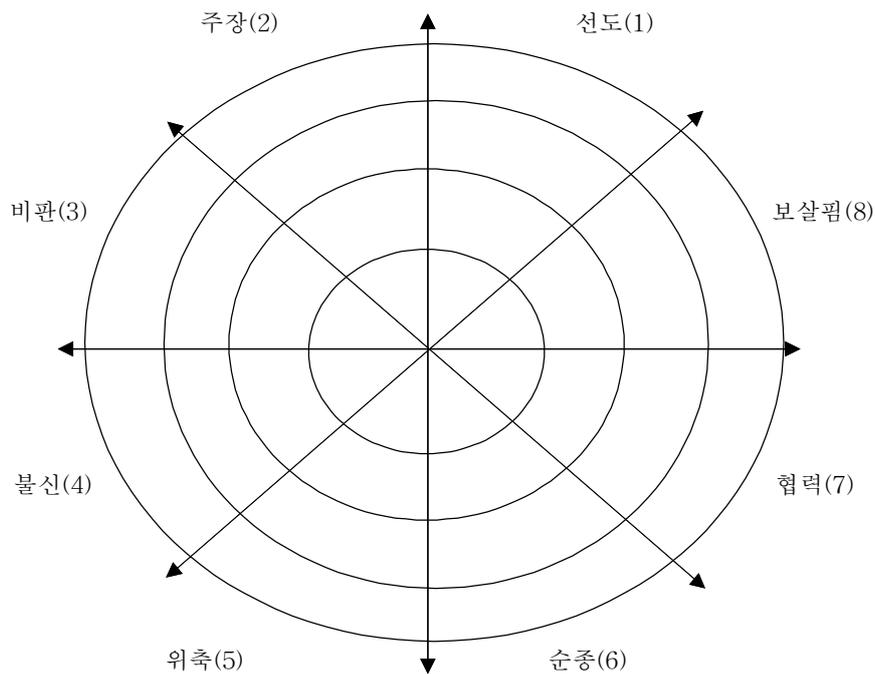


그림 1. 대인 의사소통 평정척도(ICRS)에서 대인행동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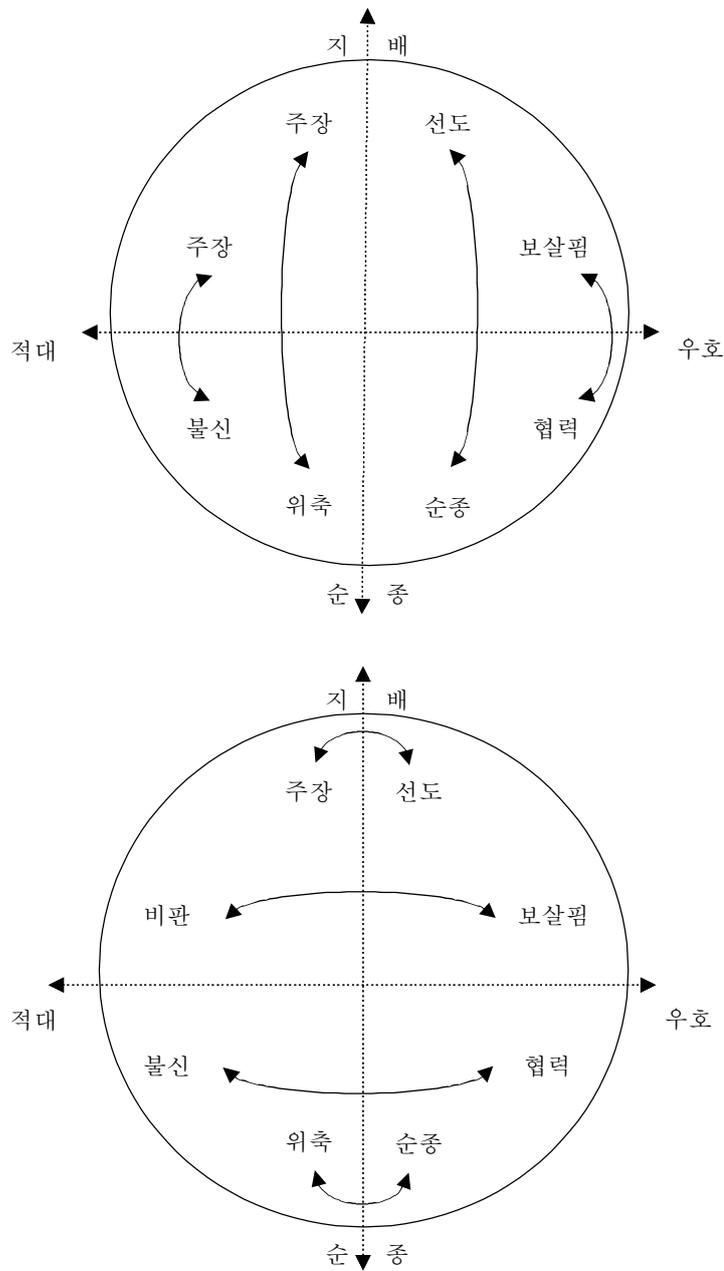


그림 2. 상보적 반응(위)과 반(反)상보적 반응(아래)

1992; 방기연, 1991; Friedlander & Phillips, 1984; Lichtenberg, 1981; Tracey & Ray, 1984).
 Reandeu & Wampold, 1991; Tracey, Heck &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상담관계에서 상보적

상호작용과 초기 작업동맹의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으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내담자 성격 특성이 상담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내현적 자기에 내담자와 상담자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담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자의 어떤 언어적 반응이 초기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1과 연구 2로 나뉜다. 연구 1에서는 내현적 자기에가 상담 초기에 작업동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각각의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밝혀진 작업동맹과 내현적 자기에의 관계를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내현적 자기에자들에게 대한 상담자의 대응전략과 작업동맹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I. 내현적 자기에와 초기 작업동맹의 관계

방 법

연구 대상

상담자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7개

대학의 학생생활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6명의 상담자들에게 연구 참여를 의뢰하였다. 남자가 4명, 여자가 22명이었고, 평균연령은 32세($SD=6.17$)였다. 상담 경력은 1개월에서 92개월로 다양했고, 상담 경력 평균은 27개월($SD=24.87$)이었다. 상담자들의 주요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질충주의적 접근(54사례), 인본주의적 접근(7사례), 정신역동적 접근(2사례)이었으며 대부분 질충주의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위 상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각 대학의 학생생활상담소에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 총 63명 가운데 남학생은 13명, 여학생은 50명이었다. 내담자들의 평균연령은 23세($SD=2.78$)이며, 연령 분포는 20세부터 35세였다. 이 가운데 상담경험이 있는 내담자들은 25명, 상담경험이 없는 내담자들은 38명이었다.

도구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2002)가 개발한 척도로서 45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의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하위 척도들은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 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선희(2002)의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내

적합치도(a)는 .90,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a)는 요인의 순서대로 .89, .81, .74, .80,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선희(2000)의 척도를 수정없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피험자(내담자 63명) 집단에서는, 전체 합치도 .87, 하위척도별 합치도는 각각 .86, .82, .75, .78, .79로 나타났다.

작업동맹 질문지(Working Alliance Inventory, WAI)

작업동맹 질문지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작업동맹을 목표합의, 과제동의 및 유대의 세 요인으로 나누어 개념화한 Bordin(1979)의 이론에 기초하여, Horvath와 Greenberg(1989)가 개발한 36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각 요인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평가자의 유형에 따라 내담자용, 상담자용, 그리고 외부 관찰자용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기연(1991)이 국내에서 최초로 번안한 것을 김선경(1992)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지각하는 작업동맹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담자용과 내담자용을 사용하였다. 김선경(1992)은 내담자용 작업동맹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76, 상담자용 질문지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7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담자 집단(63명)에서는 .89, 상담자 집단(26명)에서는 .90의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연구절차

자료 수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담자들을 통하여 내담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었으며, 상담 시작 전 혹은 1회기 직후에 내담자들에게 내현적 자기애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회기 이상 진행된 사례에서 3회기 직후에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각각 작업동맹 평가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두 질문지는 응답내용이 서로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별도로 준비된 봉투에 넣어 봉해서 연구자에게 제공되었다. 수거된 자료 중에서 모든 척도에 빠짐없이 응답을 한 63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결 과

내현적 자기애와 초기 작업동맹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N=63)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작업동맹 척도(WAI)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초기 작업동맹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1회기 직전 또는 직후에 내담자에게 실시한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점수와 3회기 직후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각각 실시한 작업동맹 하위요인 점수간 상관을 구하였다. 이는 표 2에 제시되었다.

CNS의 총점은 전체적으로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내담자일수록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목표불안정성 요인이 높은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작업동맹의 각 하위요인들은 모두 CNS의 목표

표 1. 내현적 자기애, 작업동맹의 각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하위요인	평균(M)	표준편차(SD)
내현적 자기애 (CNS)	목표불안정성	26.53	7.26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31.86	4.68
	착취/자기중심성	21.00	3.86
	과민/취약성	32.88	5.58
	소심/자신감부족 (전체)	25.78	4.55
작업동맹 (내답자)	목표	138.06	18.24
	과제	45.61	5.13
	유대	46.88	4.82
	(전체)	46.16	4.10
		138.65	12.86
작업동맹 (상답자)	목표	41.82	5.04
	과제	45.84	4.53
	유대	47.37	4.29
	(전체)	135.04	11.97

표 2. 내답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내답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의 상관

	목표 불안정성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착취/ 자기중심성	과민/ 취약성	소심/ 자신감부족	CNS총점
WAI총점 (내답자)	-.409**	-.116	-.054	-.185	-.138	-.295*
목표	-.475**	-.197	.015	-.215	-.209	-.354*
과제	-.326*	-.020	-.056	-.076	-.065	-.186
유대	-.303*	-.094	-.124	-.22	-.094	-.262

N = 63. * $p < .05$ ** $p < .01$

불안정성 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 목표 요인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과제 요인, 유대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표 3에는 내현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과 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의 하위요인 간에 보이는 상관이 제시되었다.

앞의 결과와 유사하게, CNS 총점은 전체적으로 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내담자일수록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각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전체점수(WAI 총점)는 CNS의 목표불안정성 요

표 3. 내담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의 상관

	목표 불안정성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	CNS 총점
WAI총점 (상담자)	-.278*	-.273*	.044	-.277*	-.257*	-.324**
목표	-.178	-.236	-.028	-.252*	-.150	-.257*
과제	-.278*	-.218	-.023	-.237	-.212	-.299*
유대	-.293*	-.275*	.186	-.245	-.339**	-.310*

N = 63. * $p < .05$ ** $p < .01$

인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과민/취약성 요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요인,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 내담자의 목표불안정 요인이 높을수록,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유대감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고, 상담과제가 상담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지에 동의하는 과제동의를 하는 것에도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이 높을수록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합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요인과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이 높을수록 상담자는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내담자가 상담장면에서 보이는 언어적 상보성과 작업동맹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II: 내담자-상담자 반응의 상보성과 작업동맹의 관계(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내담자를 중심으로)

방 법

연구대상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수집된 총 63사례 중 전체 평균 점수 ($M=138$)를 기준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례와 낮은 사례를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례들 중에서 작업동맹 질문지(WAI)의 내담자($M=138$)와 상담자($M=135$)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작업동맹 점수가 낮은 두 사례(사례 1, 2)와 높은 두 사례(사례 3, 4)를 선정하였다.

사례 1의 내담자-상담자

이 사례는 내현적 자기애 점수가 높고(CNS =175), 작업동맹이 낮은(WAI=119, 120) 사례이다. 상담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대학상담기관의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상담심리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상담경력 30개월이며, 약 20사례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된 상담 접근 방법으로 절충주의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

는 21세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대인 관계 문제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호소하였다. 이 사례는 연구 종료시까지 종결되지 않았으며, 자료 분석 시점까지는 총 23회기가 진행되었다.

사례 2의 내담자-상담자

이 사례는 내현적 자기에 점수가 높고(CNS=162), 작업동맹이 낮은(WAI=127, 125) 사례이다. 상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대학병원의 임상심리학 수련과정 4년차이면서, 대학상담기관의 인턴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임상심리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상담경력 48개월이며, 약 14사례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주된 상담 접근 방법은 절충주의적 접근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는 24세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였다. 이 사례는 10회기에 조기 종결되었다.

사례 3의 내담자-상담자

이 사례는 내현적 자기에 점수가 높고(CNS=154), 작업동맹이 높은(WAI=141, 141) 사례이다. 상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대학상담기관의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상담심리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상담경력 31개월이며, 약 13사례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절충주의적 접근을 주된 상담 접근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는 20세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진로 문제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호소하였다. 이 사례는 연구 종료시까지 종결되지 않았으며, 자료 분석 시점까지는 총 18회기가 진행되었다.

사례 4의 내담자-상담자

이 사례는 내현적 자기에 점수가 높고(CNS=179), 작업동맹이 높은(WAI=146, 138) 사례이다. 상담자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청소년상담기관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상담심리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상담경력 35개월이며, 약 30사례를 상담하였고, 절충주의적 접근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는 23세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대인관계 문제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호소하였다. 이 사례는 9회기에 합의 종결되었다.

측정 도구

대인 의사소통 평정척도(Interpersonal Communication Rating Scale, ICRS; Strong, Hills, & Nelson, 1988)

대인 의사소통 평정척도(ICRS)는 대인행동 원형 모델에 입각해 대인 의사소통을 8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행위는 대인관계 행동에 따라 분류되는데, 대인관계 행동들은 서로 독립적인 두 차원인 친애(우호-적대)와 통제(지배-순종)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원형구조상의 특정 지점에 위치한다. 대인관계행동의 범주는 선도(Leading), 주장(Self-Enhancing), 비판(Critical), 불신(Distrustful), 위축(Self-Effacing), 순종(Docile), 협력(Cooperative), 보살핌(Nurturant)으로 각각 명명되었다. 각 반응의 강도는 1~3점 척도 상에서 평가된다. 축어록만을 평정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Tracey와 Guineet(1990)의 권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녹음 테이프와 축어록을 함께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검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절차

사례선정 및 축어록 작성

연구 자료로 수집된 63부 가운데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고 작업동맹이 낮은 2사례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고 작업동맹이 높은 2사례를 선정하여, 이들을 상담한 4명의 상담자로부터 각각 연속된 2개 회기(2회기 및 3회기)의 녹음 테이프를 수거하였다. 수거된 녹음 테이프는 상담경험이 있는 대학원생 2명이 완전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분석 방법

축어록으로 작성된 위의 자료는 해당 회기 내에서의 상담자 및 내담자의 전체 반응수를 기준으로 초반, 중반 및 종반으로 균등하게 삼등분되었다. 그리고 각 부분에서 20개(상담자 반응 10개, 내담자 반응 10개)씩의 연이은 반응들을 무선적으로 추출하여 이를 평정대상으로 정하였다. 즉, 한 회기당 초반, 중반, 종반에 각각 20개씩 총 60개 반응(즉, 내담자 반응 30개와, 그에 대한 상담자 반응 30개)이 평정되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평정자들은 먼저 자료를 독립적으로 평정한 다음 각 평정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차이점은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절차를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각 언어반응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도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평정할 사례수가 너무 적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여 통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정자들이 자료 해석에 편향된 관점이 작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명의 감사자가 합의 판단을 점

평정자

평정 과정에서 3명의 평정자들이 자료의 분석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 과정생이 1명,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가 2명이었다. 이들 평정자들은 모두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평정자 훈련은 평정 메뉴얼의 숙지와 예비 평정, 불일치되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 등으로 약 15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평정자들은 우선 한 회기의 상담 내용을 담은 축어록 전체를 읽은 뒤, 축어록과 녹음테이프를 동시에 활용하여 ICRS의 권고 평정절차에 따라 각 반응을 평정하였다.

감사자

본 연구에서는 2명의 감사자가 참여하였는데, 감사자 1은 상담심리학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였고, 감사자 2는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였으며, 두 사람 모두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2명의 감사자들은 평정팀이 합의한 결과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평정팀과 감사자의 결정이 불일치할 경우, 평정팀과 감사자가 함께 논의하여 합의하였다.

상보성 점수의 계산 방법

본 연구는 대인관계 원형모델(Leary, 1957)에서 대인관계 행동이 두 직교축으로 이루어진 좌표상에 배열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상보성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론적으로 각 반응은 서로 직교하는 친애차원(x축)과 통제차원(y축)으로 이루어진 단위 원 위의 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론

상 각 반응의 좌표값은 그 반응이 친애차원(x축)과 이루는 각도에 sine 및 cosine을 취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여기서 $\text{sine}(\text{각도}) = y$ 축의 길이, $\text{cosine}(\text{각도}) = x$ 축의 길이가 된다. 예컨대 보살핌 반응의 좌표값은 $x = \text{cosine}(22.5) = .924$, $y = \text{sine}(22.5) = .383$ 이 되며, 비판의 좌표값은 $x = \text{cosine}(157.5) = -.924$, $y = \text{sine}(157.5) = .383$ 이 된다. 이렇게 얻어지는 각 좌표값의 범위는 $-.924 \sim .924$ 이다. 좌표값이 양수일 때는 그 반응이 우호적(x)이거나 지배적(y)임을 의미하며, 반대로 좌표값이 음수일 때는 그 반응이 적대적(x)이거나 순종적(y)임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반응쌍의 상보성 점수를 계산하는데는 다음 공식이 이용되었다.

$$0 < \text{상보성 점수} = \frac{\sqrt{(x_1 - x_2)^2 + (y_2 - y_1)^2}}{2} < 2$$

여기서 (x_1, y_1) 은 후행반응의 좌표값이고,

(x_2, y_2) 는 선행반응의 반(反)상보적 반응의 좌표값이다.

결 과

내담자 반응과 상담자 반응의 연계빈도

사례 1

사례1의 내담자 반응과 이에 대한 상담자 반응간의 연계빈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를 보면 내담자는 주장(23.4%), 불신(21.7%), 협력(21.7%), 위축(18.3%) 반응을 많이 보인 반면, 상담자는 보살핌(41.7%), 선도(31.8%) 반응을 많이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친애차원에서 내담자는 적대적 반응(66.7%)을 많이 보였고, 상담자는 주로 우호적 반응(85.0%)을 보였다. 통계차원에서는 내담자는 순종적 반응(70.0%)을, 상담자는 지배적 반응

표 4. 내담자 선행반응과 상담자 후행반응의 연계빈도(사례1)

내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선도	주장	비판	불신	위축	순종	협력	보살핌	합계(백분율)
선도	1	0	0	0	0	0	0	1	2(3.3)
주장	5	0	1	0	0	0	2	6	14(23.4)
비판	2	0	0	0	0	0	0	0	2(3.3)
불신	3	1	1	1	0	1	2	4	13(21.7)
위축	3	2	1	0	1	0	1	3	11(18.3)
순종	1	1	0	0	0	0	1	2	5(8.3)
협력	4	0	0	0	0	0	0	9	13(21.7)
보살핌	0	0	0	0	0	0	0	0	0(0.0)
합계	19	4	3	1	1	1	6	25	60
백분율(%)	31.8	6.7	5.0	1.6	1.6	1.6	10.0	41.7	100.0

(85.0%)을 많이 보였다. 한편 내담자와 상담자의 연계반응을 살펴보면, 내담자의 우호적 반응에 대해서는 상담자 또한 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내담자의 적대적 반응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은 다양했는데, 그 중에는 주장, 비판, 불신 등의 적대적 반응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례 2

사례 2의 내담자 반응과 이에 대한 상담자 반응간의 연계빈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를 보면 내담자는 협력(53.4%), 주장(18.3%), 위축(18.3%) 반응을 많이 보인 반면, 상담자는 선도(41.6%), 보살핌(28.4%) 반응을 많이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친애차원에서 내담자는 우호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이기는 했으나(60.0%), 적대적인 반응도 상당히 많이 보였고(40.0%), 상담자는 우호적 반응(78.3%)을 더 많이 보였다. 통계 차원에서는 상담자는 지배적 반응(85.0%)을, 내담자는 순종적 반응

(70.0%)을 주로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내담자와 상담자의 연계반응을 살펴보면, 내담자의 적대적 반응에 대해서 상담자는 우호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이기는 했으나, 적대적으로 반응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내담자-상담자 연계반응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내담자의 협력 반응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 양상이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협력 반응에 대해 선도와 보살핌 반응을 많이 보이기는 했으나, 주장, 비판, 불신이라는 적대적 반응 또한 드물지 않게 보였는데, 이런 상담자의 반응은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3

사례 3의 내담자 반응과 이에 대한 상담자 반응간의 연계빈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을 보면 내담자는 주로 협력(88.5%) 반응을 보인 반면, 상담자는 선도(53.4%), 보살핌

표 5. 내담자 선행반응과 상담자 후행반응의 연계빈도(사례2)

내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선도	주장	비판	불신	위축	순종	협력	보살핌	합계(백분율)
선도	0	0	0	0	0	0	0	0	0(0.0)
주장	3	0	1	1	0	2	0	4	11(18.3)
비판	1	1	0	0	0	0	0	0	2(3.3)
불신	0	0	0	0	0	0	0	0	0(0.0)
위축	6	0	1	2	0	0	0	2	11(18.3)
순종	3	0	0	0	0	1	0	0	4(6.7)
협력	12	3	2	2	0	2	0	11	32(53.4)
보살핌	0	0	0	0	0	0	0	0	0(0.0)
합계	25	4	4	5	0	5	0	17	60
백분율(%)	41.6	6.7	6.7	8.3	0.0	8.3	0.0	28.4	100.0

표 6. 내담자 선행반응과 상담자 후행반응의 연계빈도(사례3)

내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선도	주장	비판	불신	위축	순종	협력	보살핌	합계(백분율)
선도	0	0	0	0	0	0	0	0	0(0.0)
주장	1	0	0	0	0	0	0	1	2(3.3)
비판	0	0	0	0	0	0	0	0	0(0.0)
불신	2	0	0	0	0	0	0	1	3(5.0)
위축	0	0	0	0	0	0	0	1	1(1.6)
순종	0	0	0	0	0	0	0	1	1(1.6)
협력	29	0	0	0	3	3	0	18	53(88.5)
보살핌	0	0	0	0	0	0	0	0	0(0.0)
합계	32	0	0	0	3	3	0	22	60
백분율(%)	53.4	0.0	0.0	0.0	5.0	5.0	0.0	36.6	100.0

(36.6%) 반응을 많이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친애차원에서 내담자는 주로 우호적 반응(90.0%)을 보였고, 상담자 또한 주로 우호적 반응(95.0%)을 보였으며, 통제 차원에서는 상담자는 지배적 반응(90.0%)을, 내담자는 대부분 순종적 반응(96.7%)을 보였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연계반응을 살펴보면, 내담자의 협력 반응에 대해 상담자는 주로 선도와 보살핌 반응을 보였다. 드물게 드러내는 내담자의 주장, 불신, 위축 반응, 즉 적대적인 반응에 대해서 상담자는 선도나 보살핌 반응, 즉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상담자의 반응은 내담자와의 작업동맹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사례 4의 내담자 반응과 이에 대한 상담자 반응간의 연계빈도는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을 보면 내담자는 주로 협력(63.3%)

반응을 많이 보인 반면, 상담자는 보살핌(41.6%), 선도(33.3%) 반응을 많이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친애차원에서 내담자는 우호적 반응(71.7%)을 비교적 많이 보였고, 상담자는 주로 우호적 반응(90.0%)을 보였으며, 통제 차원에서는 상담자는 지배적 반응(83.3%)을, 내담자는 순종적 반응(83.3%)을 주로 보였다. 내담자와 상담자의 연계반응을 살펴보면, 내담자의 협력 반응에 대해 상담자는 주로 보살핌과 선도 반응을 보였다. 내담자의 주장 반응에 대해 상담자는 주로 보살핌 반응을 보였고, 불신 반응에 대해서 상담자는 주로 선도 반응을 보였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적대적 반응에 대해서 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러한 반응 역시 내담자와의 작업동맹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내담자 선행반응과 상담자 후행반응의 연계빈도(사례4)

내담자 반응	상담자 반응								
	선도	주장	비판	불신	위축	순종	협력	보살핌	합계(백분율)
선도	0	0	0	0	0	0	0	0	0(0.0)
주장	1	0	0	0	0	2	0	5	8(13.4)
비판	0	0	0	0	0	0	0	0	0(0.0)
불신	4	1	0	0	0	0	0	1	6(10.0)
위축	2	0	0	0	0	0	1	0	3(5.0)
순종	2	0	0	0	1	0	0	0	3(5.0)
협력	10	2	0	0	1	5	1	19	38(63.3)
보살핌	1	0	0	0	1	0	0	0	2(3.3)
합계	20	3	0	0	3	7	2	25	60
백분율(%)	33.3	5.0	0.0	0.0	5.0	11.8	3.3	41.6	100.0

긍정적 상보성과 부정적 상보성의 점수 비교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사례 1의 경우에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긍정적 상보성과 부정적 상보성의 상담 사례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았으나, 상담자

표 8. 상담 사례별 상보성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	내담자 선행 / 상담자 선행	긍정적 상보성	연계쌍	부정적 상보성	연계쌍
		1.83(30)	20	1.03(65)	40
사례 1	상담자 선행	1.26(65)	51	1.68(52)	9
	내담자 선행	1.65(54)	36	1.28(65)	24
사례 2	상담자 선행	1.52(71)	47	1.22(74)	13
	내담자 선행	1.80(32)	54	1.00(63)	6
사례 3	상담자 선행	1.77(42)	57	0.77(00)	3
	내담자 선행	1.76(39)	43	1.19(56)	17
사례 4	상담자 선행	1.69(49)	54	1.71(32)	6

- 주. 1) 괄호 안은 표준 편차임
 2) 사례 1, 2는 작업동맹이 낮은 사례. 사례 3, 4는 작업동맹이 높은 사례
 3) 긍정적 상보성: 우호적 선행 반응에 대한 상보성
 부정적 상보성: 적대적 선행 반응에 대한 상보성

는 그러한 내담자의 적대적 선행반응에 대해 비교적 상보적이지 않은 반응을(즉, 적대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사례 2의 경우는 내담자의 적대적 선행반응이 사례 1의 경우보다 적었으나 사례 3과 4에 비해서는 많았는데, 상담자가 이에 대해 다른 사례의 상담자와 비교해서 상보적으로(즉,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상담자 편에서 적대적인 선행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례 3에서는 적대적 선행반응 자체가 매우 드물었고, 적대적 선행반응에 대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비상보적으로(즉, 적대적이지 않게) 반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4에서는 내담자의 적대적 선행반응이 드물지 않았으나 상담자가 사례 2의 상담자에 비해 비상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담자 편에서 적대적 선행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상담 초기의 작업동맹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63명의 내담자들에게 상담 시작 전 내현적 자기에 척도를 실시하고, 3회기 직후에 작업동맹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상담자에게도 3회기 직후 작업동맹 질문지를 실시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내담자 중에서 초기 작업동맹을 낮게 보고한 두 사례와 작업동맹을 높게 보고한 두 사례를 대상으로 대인 의사소통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상담 회기 내 대인관계 상보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 1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내담자들은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하였다. 작업동맹의 각 하위요인들은 모두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정성 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한 내적 기준이 취약하고 불안정한 자기애적 내담자들이 초기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특성상, 삶의 목표가 불안정할수록 상담 초기에 상담자와의 작업동맹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자들은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하였다. 각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은 내현적 자기에 내담자의 목표불안정성 요인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과민/취약성 요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요인,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대체로 상담자들은 삶의 목표가 불안정하고, 타인의 비판과 반응에 민감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어 하는 자기애적 내담자들과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강연우(2004)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특성을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KIAS)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확신이 없다’, ‘자신없다’ 등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다소 적대적인 대인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내담자들의 대인관계방식이 상담관계에서 그대로 재현됨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작업동맹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 1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의 목표불안정성 요인이 높은 내담자일수록 상담 초기에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하고, 상담자 또한 이러한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하였다. 이는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장기간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목표불안정성이 높은 내현적 자기애의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작업동맹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자 또한 이러한 내담자와의 작업동맹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목표 불안정성 요인이 상담에서의 작업동맹 형성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한 연구 2에서는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내담자들이라도 상담자의 반응 양상에 따라 상담에서의 상호작용의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가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으면서 작업동맹을 높게 보고한 두 사례의 경우에는, 친애 차원에서 내담자가 우호적 반응을 주로 보였고 상담자 또한 주로 우호적 반응을 보였으며, 통제 차원에서 상담자는 지배적 반응을, 내담자는 순종적 반응을 주로 보였다. 그러나, 간혹 나타나는 내담자의 적대적 반응에 대해서도 상담자는 주로 비상보적인(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작업동맹을 낮게 보고한 두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비교적 많이 보였으며, 상담자 또한 그런 내담자에게 적대적인(상보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는 점도 주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초기 작업동맹의 수준이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의 적대적 상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과, 상담자가 내담자의 적대적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점이 이후 상담의 성공적인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담초기에 작업동맹이 낮았고 초기 종결되었던 사례 2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적대적인 반응에 대해 상담자가 적대적으로 반응한 경우가 많았고, 또한 상담자 편에서 적대적인 반응을 선도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런 양상은 내담자가 보이는 적대적 반응에 상담자가 휘말려든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누적되고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상담관계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관계가 건설적으로 복구되지 못한 채 초기 종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수준은 높았지만 상담자와의 작업동맹 형성이 잘 되었던 사례 3과 4의 경우에도 내담자의 적대적 반응에 대한 상담자의 비상보적 반응이 초기 작업동맹의 형성과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정남운(1998)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 초기에는 가능한 한 부정적 상보성을 보이지 않고 긍정적 상보성을 많이 보이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내담자들과의 상담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비판에 예민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내담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담자는 이들이 유발하는 적대적인 상보적 관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중 목표 불안정성 요인이 작업동맹과 가장 강한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상담자는 초기

상담에서 목표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타인의 반응에 예민한 내현적 자기에 내담자들이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으로 상담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내담자가 유발시키는 적대적 감정을 통제하고, 이를 내담자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며, 수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담자가 이러한 대인관계적 상보성의 개념을 유념하고 상담에 임할 수 있다면, 내현적 자기에 내담자들과의 작업동맹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내담자들과 그들의 상담자들이 초기 작업동맹 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과, 특히 상담 초기부터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 상당한 부담과 도전이 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상담자의 전략 또한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상담의 조기종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동맹의 형성은 내현적 자기에 내담자들의 부정적인 대인관계 태도에 대해 상담자가 어떻게 휘말려들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은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상담관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의 수가 많지 않아 연구 결과를 전반적인 내현적 자기에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웠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2에서 작업동맹 점수에 따른 집단 분류와 대표 사례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가 과연 각 집단을 대표하는 사례의 특성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작업동맹의 고저 집단의 분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며, 각 집단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례의 선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셋째, 상담자의 경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작업동맹에서의 차이가 상담자-내담자간 언어적 상보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상담자의 경력과 경험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거의 초심 상담자이므로 상담자의 경력 차이가 작업동맹에서의 차이를 유발하였을 것 같지는 않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경력 수준을 철저히 통제 후 다시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 의사소통 평정척도는 상호작용의 내용보다 상호작용의 과정을 평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의 세세한 임상적 의미를 포착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내담자들이 상담자들과 맺는 관계의 양상을 더 세밀하게 포착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 양상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 단계(초기, 중기, 후기) 별로 분석하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선희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경 (1992). 초기 협력관계의 지각과 언어 상호작용 유형과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주 (1991).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방기연 (1991).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자 반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운 (1998). 상담과정에서의 대인관계적 상호성과 상담성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최중순 (200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16, 252-260
- Carson, R. C. (1969). *Interaction concepts of personality*. Chicago: Aldine.
- Claiborn, C. D. & Strong, S. R. (1982). Group counseling in the schools. *The handbook of school psychology*, 530-553.
- Ellis, H. (1898). Auto-erotism: A psychological study. *Alienist and Neurologist*, 19, 260-299
- Freud, S. (1926).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S.E.*, 14, (pp. 73-102)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Priginal work published 1914).
- Friedlander, M. L. & Phillips, S. D. (1984). Preventing Anchoring Errors in Clinical Judg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Judgement*, 366-371
- Greenson, R. (1967).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ighlen, P. S., & Hill, C. E. (1984). Factors affecting client change in individual counseling; Current status and theoretical speculation. In S. Brown & R.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334-396). New York: Wiley
- Horvath, A. & Greenberg, L. (1986). Development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In L. Greenberg & W. Pinsof(Eds.), *Psychotherapeutic Process: A research handbook*. New York: Guildford Press
- Horvath, A. & Greenberg, L. (1989).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3
-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3), 185-214
- Lasch, C.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 function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personality evaluation*. New York: Ronald Press.
- O'Malley, S. S., Suh, C. S., & Strupp, H. H. (1983). The 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A report on the scale development and a process-outcom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581-586.
- Rathvon, N., & Hol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eandean, S. G. & Wampold, B. E. (1991). Relationship of power and involvement to working alliance: A multiple-case sequential analysis of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2, 107-114.
- Strong, S. R. (1986). Interpersonl influence theory and therapeutic interactions. In F. J. Dorn (Ed.), *Social influence process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p.17-30). Springfield, IL: Thomas.
- Strong, S. R. Hills, H. I., & Nelson, B, N. (1988).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ating Scale (Revised)*. Richmond: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Strupp, H. H., & Hadley, S. W. (1979). Specific versus nonspecific factors in psychotherapy: A controlled sutdy of outcom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 1125-1136
- Tracy, T. J., Heck, E. J., & Lichtenberg, J. W. (1981). Role expectations and symmetrical /complementary therapeutic relationship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8, 338-344.
- Tracy, T. J. & Ray, P. B. (1984). The stages of successful time-limited counseling: An international exa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3-27.
- Tracey. T. J. & Guinee. J. P. (1990). Generalizability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Rating Scale ratings across presentation mod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30-336
- Watzlawick, P. & Weakland, J. (1977). *The International View: Studies at the Mental Research Institute Palo Alto 1865-1974*. New York: Norton
- Welberg, L. R. (1989). *Techniques of Psychotherapy*. New York: Grune & Stration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nk, P. (1992). Three types of narcissism in women from college to mid-life. *Journal of Personality*, 60(1), 7-30
- 원 고 접 수 일 : 2008.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9. 5. 31
게 재 결 정 일 : 2009. 8. 19

The Relationship of Covert Narcissism and Early Working Alliance

Da-young Jung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paper consists of two studies. In Study 1, Covert Narcissism Scale(CNS) and Working Alliance Inventory(WAI) were administered to 63 clients from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before session 1 or 2 and after session 3 accordingly. Analysis revealed that clients with higher CNS perceived less Working Alliance. Sub-factors of Working Allianc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inner-goal-instability of Covert Narcissism. In Study 2, among high CNS cases, two each with high and low Working Alliance were analyzed from a counselor-client complementarily viewpoint. In the former cases, both displayed friendly responses in affiliation relations. In control dimension, counselors showed dominant, and clients, docile responses. In the latter, clients displayed hostile, and counselors, friendly responses and the same results were shown for the control dimension.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working alliance, affiliation, control, complementarity